

교 당 소 식

◎ 2학기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수 순교 스케줄

2018학년도 2학기에는 단과대학별로 교수님 순교를 다닙니다.

9월 18일(화) 사회과학대학

20일(목) 공공정책대학

10월 2일(화) 경영대학·경영교육원

4일(목) 사범대학·교육연수원

◎ 가례(家禮) 의식 진행

대학교당에서는 생일, 혼인, 천도재, 열반기념(제사) 등 교직원 교도님들의 가례 의식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리불공을 통한 위력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성지순례 안내

대학교당 교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 시 : 10월 13일(토) 9시 출발 (송산기념관 앞)

- 장 소 : 하섬 훈련원 (당일 바다가 갈라져서 하섬까지 약 4km를 걸어서 들어갑니다.)

부서별(단별)로 참석유무를 파악하여 10월 1일(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전서 교사'제1편 3장 제생 의세의 경륜, 4장 회상 건설의 정초, 5장 교법의 초안'(p1040-1065)입니다.

경전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준다 하였습니다. 경전공부 잘 합시다!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9월 10일 이후)

강선, 김아란, 김태영, 박영숙, 서명순, 성혁건, 유재원, 이영숙, 임규상, 정승아, 최현교

합계 : 570,000원

♥ 전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처 :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교감교무 : 보산 나상호 / 교무 : 지타원 박덕연 · 양수안 · 최현교 · 남궁현 · 표종인 · 신지겸

전화 : (063)850-5580~4 FAX : 850-5576 <http://won.wku.ac.kr>

지덕겸수 도의실천



원불교 중립학교 문화조성

제964호

원기 103년 9월 17일 셋째 주



- 작업취사(作業取捨) -

1. 작업 취사의 요지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2. 작업 취사의 목적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

대범, 우리 인류가 선(善)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른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안다 할지라도 불 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정의어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어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 오자는 것이니라.

한 마음 돌리면 선업을 짓습니다.

오늘은 작업취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쉽게 말하면 일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풀면 업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일을 당해서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을 좋은 방향으로 쓸 것이냐 나쁜 방향으로 쓸 것이냐? 그게 취사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놓을 것은 놓는 것이지요.

사람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누구든 작업을 하고 그 때마다 취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취사와 마음이 어두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취사는 다릅니다.

내게 오는 모든 복업과 죄업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업 또는 과보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죄복이 오는 것을 보면 이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인과라는 게 있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를 ‘한 마음 돌리면 선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새로 짓는 업(신업)을 잘 지어야 하는 게 있고, 둘은 지었던 구업을 받을 때 잘 감당하여 잘 지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과보받는 이치에 참회문에 밝혔습니다.

“음양상승(陰陽相勝)의 도를 따라 선행을 한 사람은 후일에 상생(相生)의 과보를 받고 악행을 한 사람은 후일에 상극(相克)의 과보를 받는 것이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으며, 영원히 참회하여 허물을 고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음양상승의 도’란 죄와 복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인과보응의 이치를 원리로 풀어서 한 말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남에 따라 ‘음 기운’ 차고 서늘한 기운과 ‘양 기운’이 따듯한 기운이 나옵니다. 두 기운은 어느 쪽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일 뿐 공존합니다. 한 기운으로 다른 기운을 누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한 업보가 돌아 올 때는 물론 내게 손해될 악한 업보가 돌아올 때도 그에 응대하여 선행을 한 사람은 후일에 서로 이익 되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반면에 내게 악한 업보가 돌아올 때는 물론 내게 이익이 될 선한 업보가 돌아올 때도 그에 응대하여 악행을 한 사람은 후일에 서로 대질리고 깎아내리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한 마음 돌리어 선업을 지으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법 회 식 순

사회 : 성혁건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주 레 자
개 회		사 회 자
불전헌배◎	 사회자 안내로	다 함 께
입 정		다 함 께
독 경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주 레 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성가 128장)	사 회 자
법 어 봉 독	 작업취사(作業取捨)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전서 54쪽)	다 함 께
설 법	 “한 마음 돌리면 선업을 짓습니다.”	보산 나상호 교감
다 짐 심 고		다 함 께
성 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제』	다 함 께
공 고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기획처장
폐 회		사 회 자

법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